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최검지	영문	CHOI GEOM JI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른응용과학대학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교류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찾았고 한국으로 온 친구들이 이곳저곳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교환학생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서류준비/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국제교류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기서 받은 유인물을 참고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교환학생 온라인신청(하일브른대학에서 메일이 올겁니다.), 기숙사, 보험에 대한 것 역시 메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 지원시 사용할 메일은 평소에 자주 쓰고, 잘 확인하는 것으로 적길 바랍니다. (만약 네이버나 다음메일을 사용할 것 이라면 반드시 출국 전 해외로그인 차단을 off 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메일이 스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발급은 독일 도착 후, 학교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단체로 진행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독일에서 생활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슈페어konto'라고 불리는 block account입니다. [독일 최저 생활비*머무르는 개월 수] 만큼의 돈을 비자 만들기 전까지 마련해야합니다. 보통 5~6개월치를 묶는데 그럼 대략 3600~4500유로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화로 약 460~580만원. 생활비 변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비자 발급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잘 컨택해서 해외송금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비자발급 시 드는 돈을 챙겨서 가면 비자발급 해줍니다.

/항공권구입/

항공권 구입에 대해서는 딱히 팁이 없습니다. 항공권 사이트에서 수시로 가격 체크하면서 저렴할 때 구입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일찍 구매하는 것이 좋다 라고는 말을 못하는 것이 저는 루프트한자 왕복 직항으로 거의 100만원에 가깝게 구매를 했는데 구매 후 찾아보니 가격이 80만원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강신청/

독일에는 한국에서처럼 특별히 수강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오리엔테이션 기간의 마지막 날에 전공별로 다 같이 하게 되는데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채워 넣고 ilias라는 사이트에서 그 과목을 찾아 신청을 합니다. 수업을 들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해도 됩니다. 다만 일부 수업은 등록하는데 암호를 입력해야 함으로 첫 수업에 무조건 참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일은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프리한 대신 시험신청을 따로 합니다. 이걸 안하면 수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시험이

따로 없는 수업도 반드시 시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을 요구하면 돈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취소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기숙사신청/

기숙사 신청은 처음에 교환학생 온라인신청을 진행할 때 같이 합니다. 기숙사를 희망한다고 체크 표시해 두면 그게 신청이니 따로 무언가를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배정은 랜덤이고 될지 안될지는 운이지만 대체로 다 붙여줍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일단 대학교가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곳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기숙사 근처에 있는 sontheim(존타임)과 시내에 위치한 europa platz(유로파플라츠)입니다. 첫 번째는 공과수업을 주로 하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수업을 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들 금오공대와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독일은 여름은 건기고 겨울은 우기입니다. 저는 겨울학기만 다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9월초부터 11월 초까지는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비가 안오더라도 맑은날은 드뭅니다. 습도가 높고 하늘이 잿빛이라 조금 우중충 하니 맑은날에는 충분히 즐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는 비가 별로 안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날씨는 하일브론 기준입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1. Deutsch als Fremdsprache 1 , A1.1 8ECTS - Dr. Elwira Bauer

독일어 수업입니다. 예전에는 E-learning과 별도로 학점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2018 2학기 기준 학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E-learning을 패스 받지 못하면 독일어 학점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3분정도 계시고 반은 시간대만 가르치면 랜덤으로 배정 됩니다. 교수님에 따라 수업난이도가 다릅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루고 2번 정도 칩니다. 출석점수가 반영됩니다.

2. English for business studies 1 , B1 2.5ECTS – Diane Derzenbach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 배웁니다. B1은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과제가 있습니다. 자기나라에서 성공한 기업이나 유명인사에 대해 조사한 것을 5분 이내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 발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5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쓰시면 됩니다. 과제 점수는 없고 그저 했으면 100, 안했으면 0 이렇게 나뉩니다. 시험도 간단하고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과 유인물을 참고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3. Intern. Human Resource Management 2.5ECTS – M.A. Simone von Boddien

경영학 수업입니다. 국제인적자원관리. 저는 경영학 쪽이 잘 안 맞아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전공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업 중간 중간 일화를 풀어주시는데 잘 들으면 수업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팀 프로젝트가 하나 주어지고 첫 시간에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주변에 앉은 사람들끼리 묶어서 5분 정도 토론할 시간을 주신다음 발표를 많이 시키십니다. 중요한 과정이고 여기서 도출된 답변이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강하실 분들은 이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은 암기싸움입니다. 예상 질문지를 30개 넘게 주시고 그 중에 10개정도를 뽑아서 내십니다.

4. Modellbildung und Simulation 4ECTS – Prof. Philip Gaskell

유체역학+수치해석+유한요소법+열전달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시험은 없고 일반과제가 3번 정도 나가고 기말을 대신할 큰(?) 과제가 하나 나옵니다. 4개중 하나라도 안내면 F이고 기간은 주어져주시지만 덜

했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마감기한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학점을 매우 후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기 준으로는 수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이 영국사람이셔서 미국발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조금 힘듭니다.

5. Mensch-Maschine-Schnittstelle 2.5ECTS – Prof. Dr.-Ing. Ansgar Meroth

EB guide 라는 프로그램으로 interface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조별과제로 이루어지고 수업은 5번 정도 있습니다. 시험은 조별발표로 대체되고 수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강의 들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후 보고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interface 만들 때 필요한 기능들은 설명하는게 다입니다. 수업자체는 흥미롭고 쉽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3군데 있습니다. 막스플랑크 27, 31 그리고 캐네디입니다. 27과 31은 같이 있고 캐네디는 떨어져 2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7건물은 1인실,2인실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2인실 3인실 4인실 다양합니다. 기숙사 비는 27 1인실은 305유로, 2인실은 297유로. 31 2인실은 242유로, 캐네디는 방 크기별로 200~250유로로 다양합니다. 저는 27건물에 살아서 그것에 대해 밖에 잘 모르지만 27건물에는 세탁기가 없어서 31건물로 직접 가야하고, 엘리베이터는 27건물에만 있습니다. 1인실의 경우 공동주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냉장고, 인덕션, 오븐, 전자렌지 다 있습니다. 2인실에는 냉장고와 인덕션이 있지만 오븐과 전자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전에 살던 학생이 그 방에 전자렌지등을 기증한다면 운 좋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조대는 하우스마스터(기숙사 관리인) 한테 부탁하면 언제든지 줍니다. 창문에 달 커튼이나 자전거 같은 것도 빌릴 수 있습니다. 독일 기숙사가 제일 좋은점이 방이 각각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때문에 룸메이트와 자주 못마주칠 수 있지만 자취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하는 것들/

오리엔테이션은 EU국가의 교환학생 Non-EU국가의 교환학생의 기간이 다릅니다.

순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것들에 대해 적어 보도록 하자면,

1. 거주지 등록과 계좌개설

거주지 등록을 안멜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같이 합니다. 교류원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면 따라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은행 개설도 같이하는데 몇 명씩 불러나가서 한명씩 은행 직원과 1:1로 개설 합니다. 이때 block account와 current account를 같이 개설해야 합니다. block account 개설비용은 50유로이고 이때 학생회비 72.5유로도 함께 주면 따로 학생회비 내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참고로 block account에 돈을 한꺼번에 묶고 current account로 매달 720유로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지만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은행에 메일 보내면 보내줍니다. current account는 카드계좌로, 계좌개설 할 때 어플리케이션도 깔고 사용법도 알려주니 그거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 깔 때 사용언어 영어로 설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독일어로 설정해주는 데 나중에 언어설정 변경 못합니다.

안멜둥 서류 작성 끝나면 며칠 지나고 다함께 시청에 갑니다. 한명씩 들어가서 서류 제출하면 비자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거주지등록 완료 후 환영선물이라고 semester ticket 확인서와 팜플렛 같은걸 주는데 팜플렛 뒤에는 쿠폰 몇 개가 있으니 쓰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확인서는 나중에 학교에서 실제 semester ticket과 반드시 교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학생증 필요하니 그전에 꼭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2. AOK 보험계약

한국에 있을 때 메일로 보험서를 미리 보내줍니다. 그걸 작성해서 보내신 분들은 다 AOK 계약이 맺어진 것인데, 이것 한번 더 확인하면서 보험비 빠져나갈 계좌 적으라고 합니다. 메일로 주고받을때도 그렇고 실제로 사인할때도 그렇고 반드시 기숙사명, 층, 방 번호, 이름 꼭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틀리게 적혀있다면 보험카드가 안 올수도 있습니다. 보험카드는 우편으로 보내지고 만약 한달이 되도록 못받으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새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장학금 미팅

이건 독일 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안 받으면 참여 안 하는게 맞습니다. 이것 역시 장학금 계약서나 필요한 서류 한국에서 다 챙겨 오셔야 하고, 담당 선생님께 서류 내고 장학금 받을 계좌 적으면 됩니다.

4. 견학

단체로 하이델베르크, 슈투트가르트를 토요일에 갑니다. 5유로씩 내야하고 하이델베르크에는 시티투어, 슈투트가르트에는 벤츠박물관 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되 반드시 시간 지켜서 버스에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갑니다.

5. 시간표 짜기

위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버디프로그램/

비즈니스 전공자들에게는 교류도우미가 한명씩 붙지만 공과계열 전공자들은 교류도우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생활하는데 딱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국제교류원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다양한 운동 동아리가 있고 댄스동아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동아리를 했는데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장소까지 이동해야하고 장소가 좁고 매트가 3개밖에 없어서 오랫동안 치지는 못하고 여러 회원들과 교대로 치게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운동되고 친목에도 좋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독일에는 인종차별이 다른 유럽에 비해 약하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동양인 비하나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한국에서 영어공부 안하다가 독일에서 할 거라고 책 들고 갈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책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안 하면 독일에서도 안 합니다. 이왕 다른 나라에 온 거 한국인들 하고만 어울리는 것 보다 외국인친구들과 사귀는걸 추천드립니다. 반반씩 어울리면 딱 좋지만 사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되니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잘 있다가 가면 사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독일은 식재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대신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니 식자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서 공유해서 사면 돈을 아낄수 있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자 적어보자면,

1. 공유기와 랜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될 분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기숙사에 와이파이기기 없습니다. 독일에서 사도되지만

30~50유로 정도 합니다.

2. 탁상거울

다이소에서 2000~3000원하는 탁상거울 독일에서 6~8유로 합니다. 방별로 거울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니 그냥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콘덴서

케네디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한해서 필요합니다. 막스 27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은 콘덴서 딱히 필요 없습니다. 책상에 4개, 침대 옆에 2개 벽에 붙어 있습니다.

4. 전기밥솥

전기밥솥 가져온 거 신의 한수. 정말 편하게 잘 씁니다.

5. 전기매트

학기 초반에 라디에이터가 고장 나서 계속 춥게 지냈는데 그때 유용하게 쓰고, 추운곳으로 여행갈때도 제법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라디에이터 고치고 나서는 한번도 안썼으니 이거는 정말 추위 못참는 사람들이 들고 오면 편하게 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라디에이터 화력 엄청납니다. (막스 27 기준)

6. 글라스락

플라스틱 반찬통은 독일에서도 1유로면 사지만 글라스락은 4~9유로 정도 합니다. 독일에서 반찬 만들어 드실 분들에 한해서 한국에서 하나 두 개 정도 들고 오는 걸 추천 합니다

7. 고무장갑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꼭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 드립니다. 독일에도 고무장갑 팔지만 그냥 비닐장갑처럼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8. 우산

독일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 챙기는 게 좋습니다. 독일우산보다 한국우산이 더 튼튼하고 좋습니다.

9. 욕실화

유럽은 건식이라 화장실 바닥이 건조해 욕실화 쓸 일이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래도 있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